

테니스에 빠진 사나이의 황설수설

유학생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테니스는 나하고 거리가 먼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 공을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어 천방지축으로 날려 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에 테니스장에 나가 보았자 재미가 있을 리 없었다. 게다가 몇 번인가 그렇게 공을 날려 보내고 나면, 손에 물집이 잡혀 고통이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테니스를 배워볼까 하다가도 이내 포기해 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랬던 내가 테니스에 푹 빠져, 이제는 테니스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가 되었다. 어떤 일이 테니스 일정과 겹치면 서슴지 않고 테니스 쪽을 택하는 나를 보고 ‘테니스에 미친 사나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이왕 어디에 미칠 바에야, 다른 것에 미치는 것보다는 테니스에 미치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고 생각한다. 돈도 별로 들지 않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으니 말이다.

테니스를 좋아하기만 할 뿐, 시작한 지 거의 삼십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실력은 좀체 늘지 않는다. 하기가 지금 내 나이에겐 실력이 줄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으로 여겨야 할 형편인지 모른다. 내 둔한 운동신경으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만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과목에서 80점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 ‘몸치’였으니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테니스를 치는 내 폼은 실력보다도 한층 더 엉망인가 보다. 나야 내 폼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의 관전평을 들어 보면 그 게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어떤 친구는 내 폼이 한 마디로 ‘개폼’인데, 이를 효율적인 무기로 활용하라는 충고까지 해주었다.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상대방이 내 엉성한 폼을 보고 방심한 틈을 노려 공격을 하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뽕 잡는 것이 매’라는 우리 속담에서 큰 위안을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뽕배기보다 장맛’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폼이야 어찌 되었든, 막상 게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 나의 굳은 신념이다. 그렇다고 내 실력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폼에 비해 실력이 더 낫다는 점만은 자신할 수 있다. 내 폼을 비웃는 친구들에게도 가끔 승리를 거둘 때가 있는데, 이 때의 통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 동안 테니스를 통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보너스였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들 중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떠난 김태성 교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김 교수는 나보다 여덟 살이나 더 어렸지만, 거의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여러 모로 내 마음에 꼭 드는 친구는 별로 없었다. 김 교수는 인간성도 좋아 나 말도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

우리 경제학부의 복식 라이벌전에서 김 교수는 언제나 나의 충실한 전우였다. 고등학교 때 정구선수를 했다는 김수행 교수의 위세에 눌려 우리 팀은 늘 패배를 밥 먹듯 했다. 그러나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실력을 키워 나중에는 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 팀이 승리를 독차지하는 날이 곧 왔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의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테니스장에서의 김 교수는 평소의 그와 약간 다르다는 사실이다. 사람 중

기로 유명한 그였지만, 판정에 관해서는 별로 양보를 하지 않으려 했다. 또한 파트너인 내가 계속 해매는 모습을 보이면 잔소리를 하기도 했다. 워낙 승부근성이 강한 성격이라 곧 후회하게 될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가끔 저질렀던 것이다. 나에게 잔소리를 해놓고서 멋쩍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보면 마음속으로는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다.

테니스 하면 내 옆방의 이지순 교수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친구다. 그는 정식 레슨을 받고 테니스에 입문했기 때문에 나보다 폼이 훨씬 더 좋다. 그 역시 무골호인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테니스장에 들어서면 돌연 승부사로 변신해 버린다. 나와 반대편에서 게임을 할 때가 많은데, 끈질기게 공을 돌려보내는 그가 두려울 때가 있다. 그의 장기는 무리하지 않고 순하게 공을 치는 것, 말하자면 ‘무욕의 테니스’라고 할 수 있다.

나처럼 쉽게 흥분하는 유형의 사람은 이 교수의 침착한 플레이에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그는 나를 흥분시키는 심리전을 불사하지 않는다.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오는지 잘 모를 정도로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욱 광분하게 만든다. 한 가지 위안은 그 광분의 결과가 언제나 나의 일방적인 패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가 펼친 고도의 심리전에 의해 내 페이스가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예전의 우리 경제학부에는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 네 개의 복식조를 만들 수 있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테니스를 그만 뒤, 이제는 오직 이 교수만이 내 벗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가 더욱 귀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테니스장에 나오지 않아 나를 실망시킬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 모든 일을 제치고 함께 테니스장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친구의 도리가 아닐까?

나더러 골프를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떻겠냐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운동이라야 걷기가 고작인 골프는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 두어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나야 비로소 무언가 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더 나이를 먹으면 언젠가는 테니스를 치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테니스장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스스로 매우 행복하다고 느낀다.